
 인천광역시		보 도 자 료		 인천의꿈 대한민국의미래
		배포일자	2022년 10월 6일(목) 총 2매	
담당 부서	생활환경과	담 당 자	• 생활환경팀장 조상열 ☎440-3541 • 담당자 이예슬 ☎440-3543	
사진(이미지)	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
보 도 시 점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
인천시, 몽골 사막에 「인천 희망의 숲」 조성
- 10.6. ~ 7. 몽골 울란바토르시 성긴하이르한구에 비솔나무 600주 식재 -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인천시와 인천 희망의 숲 시민협의회가 주최하고 인천산림조합이 주관하는 2022년 몽골 ‘인천 희망의 숲’ 식목행사가 몽골 울란바토르시 성긴하이르한구 지역에서 10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개최됐다고 밝혔다.

몽골 ‘인천 희망의 숲’ 조성사업은 사막화와 황사 등 기후변화로 인한 국제적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08년 시민 주도로 몽골에서 나무심기를 시작했다. 2013년부터 현재까지는 민·관 협력 공적개발 원조(ODA) 사업으로 바양노르숨과 다신칠링숨, 성긴하이르한 지역에 축구장 약 174개 크기인 124ha에 19만 7천여 주의 나무를 심어 숲을 조성했다.

올해는 몽골 울란바토르시 성긴하이르한구 지역에 초등4학년 학생부터 일반인으로 구성된 인천시 자원봉사활동단 32명을 비롯, 현지의 몽골 자연환경청장, 74개 학교 학생, 21개 동 주민 등 울란바토르시 주민 120여명 등 약 152명이 참석했다.

특히, 올해 식목행사에 사용된 비술나무 600주는 사업장에서 자체 양묘한 묘목으로 더 의미가 있다.

인천시는 ‘인천 희망의 숲’ 조성 2단계 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7년까지 울란바토르의 축구장 약 140여개 크기인 100ha에 14만 4천주 식재를 목표로 생활력이 강한 비술나무와 소나무 등을 식재할 예정이다. 올해는 이번에 식재한 600주를 포함해 총 1만 8천여 주를 심었다.

양경모 인천시 생활환경과장은 “초등학생부터 일반시민까지 다양한 시민들로 구성된 자원봉사활동단이 한마음으로 지구 살리기에 동참함은 물론, 몽골 학생들과의 문화교류 활동도 병행해 한·몽 국제교류에도 힘쓰겠다.” 고 말했다.

<행사사진>

